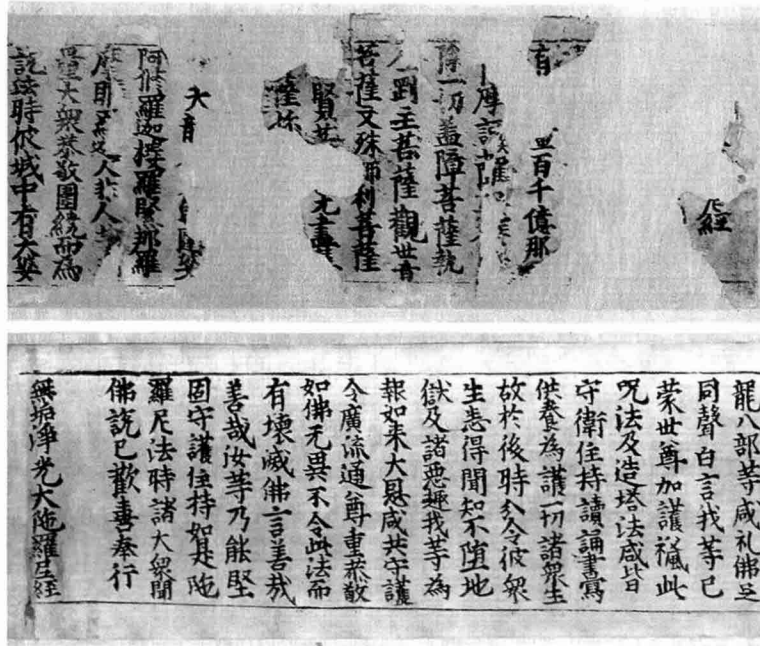


인쇄역사문화관에는 - 3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조성한 인쇄역사문화관에는 고대부터 미래인쇄까지를 총

망라한 인쇄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지난 1천년 동안 개발되었던 다양한 활자들이 복원돼 전시되어 있다. 본보에서는 시리즈로 인쇄역사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1966년 불국사의 석가탑을 해체 보수하는 중에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두루마리로 된 종이몽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었다. 다라니경은 불교의 진언(眞言)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다라니경의 역사적 의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데 있다. 다라니경은 너비 8센티미터, 길이 52센티미터 정도의 종이 열두 장을 이어붙여 두루마리로 등글게 말았는데 총 길이는 630센티미터 정도이다.

● 다라니경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당나라에서 인쇄하여 신라에 보낸 불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근거로 다라니경 마지막 부분에 당의 측천무후 때 새로 만든 몇 글자가 인쇄 글자로 사용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측천무후 때 만들어진 글자들은 다라니경의 인쇄 시기보다 약 50년 정도 앞선다.

● 신라는 종이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 '백추지'라 불렸는데, 섬유질이 풍부하여 질기고 먹 발이 잘 받으며 색깔이 하얀 만큼 글씨도 선명하였다. 일본의 종이 전문가들이 다라니경 인쇄에 쓰인 종이를 연구한 결과 신라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7년 6월, 학계에서는 다라니경의 종이가 신라의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다라니경은 우리나라가 제작하고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것이다.